

성대낭종에 대한 임상적 및 음향학적 고찰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홍기환 · 이상현* · 양운수

성대낭종은 성대폴립, 결절, 라인케씨 부종 등 애성을 유발하는 다른 질환보다 빈도는 적지만 심한 음성의 변화를 일으키는 질환이지만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내시경의 발달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성대낭종은 낭종의 내용물 및 점막상태에 따라 저류낭종과 유표피낭종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표피낭종은 이학적 검사상 흰색을 띠고 보다 반짝거리는 양상을 보이며 저류낭종은 유표피낭종에 비해 색깔이나 양상이 뚜렷하지 않아 성대폴립이나 결절 등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전북대학병원 이비인후-두경부외과학교실에서 2001년까지 시행한 현미경하후두미세수술 2595례 중 수술 후 성대낭종으로 확진된 121례를 대상으로 성대낭종의 임상양상 및 음향학적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음성의 음향변수를 이용하여 성대낭종에 대한 의미있는 진단적인 변수를 찾기 위해 일측 성대마비와 결절, 낭종에 대해 음향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성대 낭종은 성대 마비에 비해 주파수, 진폭 잡음과 연관된 음향변수의 비정상적 수치가 유의하게 낮았으나 성대 결절보다는 높아 성대낭종시 성대 운동의 안정성 감소와 비대칭성, 성문폐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성대 결절보다는 음성이 더 손상됨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떨림의 음향변수는 성대 마비와 결절, 낭종에 대해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다.